김정일주의 만세!

앙 위 원 회 기 관 지 동

제252호 [루계 제24665호] 주체103(2014)년 9월 9일(화요일)

인 민 자 김정은동지 만세

설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한길따라 끝없이 강성번영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불패 의 사회주의강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며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 가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변혁을 이룩해 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영광 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 3 7 (1 9 4 8)년 9월 9일 전체 조선민족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주체사상에 기 초한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적인 강국 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 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 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 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 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넓은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 갈수 있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값높은 삶과 영예, 부강조국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 리와 기적은 공화국의 창건과 뗴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년대 와 세기를 이어 불패의 기상을 높이 떨치 며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 온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고 크나큰 영광이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 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조국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끄시여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 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의 한길따라 강대하 고 문명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뗘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

주체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며 영원한 진군로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60여성상은 전인 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며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되여온 전투적로정이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력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 을 제시하시고 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 을 창조하시였다.해방된 조국땅우에 창 건된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독립국가건설사상의 빛나는 결정체 이다.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력사 에는 선행리론이나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시고 대국들 의 압력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시며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신념과 배짱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신념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게 한 필승의 보검 이였으며 빈터우에서 천리마의 나래를 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 로 솟구쳐오르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사 대와 교조로 얼룩진 파란많은 수난의 력 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나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공적은 조국청 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우 리 공화국을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 길로만 전진시키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신조이고 의지 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 적인 체계로 정립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는 수령님의 나라로 빛내이시였다. 사람도 사회도 자 연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 혁해나가는 장엄한 진군이 다그쳐지는 속에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 0년대에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신 것은 우리 조국이 주체의 항로를 따라 더 욱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한 원동력이 였다. 총대를 앞세우고 총대의 위력을 천백 배로 강화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 에 의하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주의가 굳건히 수 호 되 고 우리 공화국 의 국제적지 위와 영향력 이 비상히 높 아지게 되였 다. 최악의 역 경속에서 강 성국가건설의 활로가 열려 지고 새로운 의 불길높이 우리 식의 경 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 가 다져지게 되 였 으 며 민족만대의 운명수호와 담 보 하 는 백 두산대 국의 억센 기틀이 마 련 될 수 있 은 것 은 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반공화국압살

책동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사회

위 대 한 대원수님들의 령 도 따 라 주체의 기치 를 높이 들고 백 전 백 승 을 수놓아온 우 리 공화국은 경 애 하 는 원수님께서 이 끄 시 는 1 0 0 년대의 진 군 길 에 서

그 존엄과 위

력을 더욱 힘

있게 떨치고

의 결실이다.

있다.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는 대 항 대원수님들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주체 의 사회주의 조국을 천하 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는

걸출한 령도자이시다.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눈물의 언덕에서 새로운 주체 1 0 0 년대를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 민이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주체의 한길로만 나아가도록 억센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 리 식의 대결방식으로 단호히 쳐갈기시고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력을 최강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강성번영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천만군민의 정 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나가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주체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는 어리석게도 그 무슨 《변화》와 《급 변사태》를 꿈꾸는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있 으며 강성부흥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 가는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 없이 과시되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 리 공화국은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 하며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존엄높은 나라이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강국의 기본징표이다.

우리 조국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식민지 약소국으로부터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구 쳐오른 경이적인 기적은 다름아닌 자주로 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오늘 우리 당은 강 한 자주적대를 가지고 모든 로선과 정책 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우리 인민 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세워나가고있다. 인공지구위성《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와 새로운 병진로선의 제시와 같은 결단성있는 사변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는 추호도 타협하거

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쾌거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 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 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 으로 되고있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가 있기에 오 늘 우리 조국은 가장 곧바른 지름길을 따 라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 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 분오렬되고 정치경제적파국에 처한 나라들 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궤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 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와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 에 달하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 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변혁들이 이룩

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 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의 길 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 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

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 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한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평 화와 번영도 있다는것이 백두산절세위인들 의 드팀없는 정치신조였다.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은 새로운 주체 1 0 0년대의 진군길에서 선군

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써 우리 공화국은 우리를 건드리는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섬멸 적타격을 안길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 을 가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

치고있다. 인민들에게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 활을 안겨주는것을 성스러운 사명으로 내세운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무엇보 다 소중한것은 평화적환경이다.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그 어떤 대국 의 전략이나 국제여론에 의해서가 아니 라 선군으로 다져진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기때문이다. 우리가 수십년간 허리띠를 조이며 다지고다진 선군의 보 검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만 년재보이다.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끝까지 수호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 부동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 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나가는 참다운 인민 의 나라이다.

사회주의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다. 인민대중중심 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세상에 부 럼없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 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리념과 본태 를 적극 살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 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투 쟁하고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 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주의적소유와 집단주의원칙이 철저히 고수되고있으며 온 나라에 인민의 리익과

선,절대시하 세기가 열백번 바뀐대도 주체의 영원한 는 인민존중,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끝없이 흐르도록 하 정신이 차넘 여야 한다. 치고 전반적 우리 공화국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 1 2 년제의 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무교육제를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와 인민 비롯한 사회 적 시 책 들 이

시기 위한 혁

명적인 사상

공세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투철

한 사회주의

신념의 발현

밑에 오늘 이

땅에서는 인

민이 바라는

사회주의만복

이 현실로 펼

쳐지고있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

아안은 현대

적인 살림집

들과 문수물

놀이장, 마식

령스키장,송

도원국제소년

단 야 영 소 를

비롯한 훌륭

한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

서 평범한 근

로자들과 아

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

다. 전민이 혁

명적인 사상

과 고상한 정

신 도 덕 적 풍

모, 현대과학

기술을 겸비

한 혁명인재

로 튼튼히 자

라나고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

체성과 민족

성이 더 활짝 꽃펴나고있으며 철령아래 사

파바다와 같은 희한한 무릉도원이 이르는

곳마다에 솟아나고있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양양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온다고 해도 사회주의붉은기를 끝까지 들

고나갈것이며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

를 누리게 될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

백두산절세위인들이 열어주신 주체의 한

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

로 힘차게 나아가는데 우리 공화국의 영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며 우리 조국

을 하루빨리 주체의 강성국가로 빛내이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자주강국의 기틀과 부강번영의

튼튼한 토대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

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

며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

저히 구현하여 모든 사업을 인민을 중심

에 놓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조직전개

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정

치와 군사,경제와 문화,대외관계의

이룩하신 부강조국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

한 전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하여 모든것을 다해나갈것이다.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

여나가야 한다.

년초석이다.

당의 령도

이다.

의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전 실시되고있 통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이다. 우리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다. 제국주의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파 반동적인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살며 사상문화와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비사회주의 가슴깊이 간직하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 적 현 상 들 을 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편의를 최우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세대와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이 천만군민 실천과 행동의 구호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유일 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 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 다. 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절대불 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며 당정책을 무조 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 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더욱 철저 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이다. 우리 인민 들을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밝은 등대 이고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이며 혁명의 훌륭한 교과서가 다름아닌 김정일애국주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애국헌신의 세계에 자신들의 마음을 비추 어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 세우고 공장의 현대화를 다그쳐도 조국의 앞당기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겠다는 불 타는 애국심을 안고 한사람같이 펼쳐나 경제와 문화, 파학기술 등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안아와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 어놓으며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꾸려도 애국의 성실한 땀이 깃들게 하는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외진 곳에서도 언제나 조국의 번영을 생각하며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사람,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기적을 안아오고야마는 사람이 진짜애국 자이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 인민군 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최정예혁명강군의 위력을 천백배로 높이 며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로서의 영예로 운 사명을 다해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조 국보위초소에서 청춘을 빛내이는것을 신 성한 의무, 값높은 영예로 간직하여야 한 다. 전체 인민들은 군사를 중시하고 군사 를 성실히 배워 일단 적들이 달려들면 단 호히 쳐물리칠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 세를 갖추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는 길에서 원군기풍을 높이 발휘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 위업이며 우리 세대앞에 맡겨진 력사적과 제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 외에 있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굳게 뭉쳐 온갖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 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 한 대외정책리념이다.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모든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전쟁도발책 동과 지배주의적야망을 짓부시고 조선반도 와 동북아시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야 한다.

불멸의 태양기를 진두에 높이 날리며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나 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불타는 애국적헌신성 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 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부강조국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천만년 길이 전해가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4월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8월



주제사상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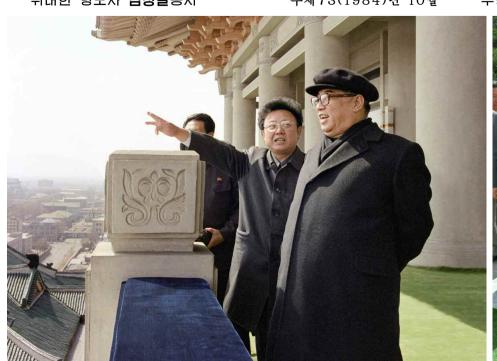
만수대의사당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3(1984)년 10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에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년 11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6(1987)년 11월



인민대학습당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4월



만경대물놀이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8월



서해갑문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9월

경 애 하 는 김 정 은 통 지 께 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 리 아 아 랍 공 화 국 싸

나는 생일 49돐을 맞는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김

나는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가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당신이 건강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 당 선 로 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인 민 최 고 사 령 관 군 정

> > 주체103(2014)년 9월 8일

괸 OH <u>o</u>ł 정 <u>Q</u> 김 동 소 명 졀

라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 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타격실동훈련을 지도하 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항공 륙전병들의 용감한 훈련모습 에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인민 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 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

궘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훈 함으로써 모든 군인들을 다병 망,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 종화된 만능의 일당백싸움군들 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

시였다.

에

로씨야의 신문들인 《로씨스 먄 마 》는 까야 가제따》, 《모스꼽스끼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꼼쏘몰레쯔》,인터네트신문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신 《브즈글랴드. 루》, 인터네트 데 대하여, 민주꽁고주체사상 통신들인 뽈리뜨. 루, 드니. 루, 브랸스크. 루, 중국의 신화통 폐지는 이 소식과 함께 완공된 련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 신,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보도

> 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

송, 먄마신문 《뉴 라이트 오브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

평

양

은

【조선중앙통신】

하는 경 김 정 은 동 지 께 OH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에게 중국의 당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 로 당 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은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남 동 刀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내 각 총 리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굥화국이 창건된 후 지난 66년간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위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이 앞으로 나라의 경제와 사회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적인 중조천서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맺어주고 심혈을 기울여 가꾸어주시것으로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우리들은 조선측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강화함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번영과 발전, 평화와 안정에 적극 이바지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 국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총 서 기 화 인 민 공 화 주 주 석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중 앙 군 사 위 원 회 평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원 리 총 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덛 2014년 9월 8일

베이징

령 도 일동포들 자 애 로 9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백두의 억센 기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국땅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 길드높이 비약과 혁신의 대화폭이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대를 이 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경사스러운 공화국창건 66돐 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공 화국은 인류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며 선군으로 승리하며 위용떨치는 불패의 백두산강국입니다.

세계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을 뿌 리는 조국이 있어 우리 재일동포들은 이역의 찬바람속에서도 민족의 존엄 을 지키고 참된 삶을 누리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망국노의 천대와 멸시속에서 피눈물을 흘 리던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구원하여주시고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 로 키워주시였으며 존망의 위기에 놓인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한길로 이끄시여 공화국의 진정한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결성하여주시고 애국충 정의 모범, 애족애국의 선각자로 빛내여주시였습니다.

공화국 국적법으로 재일동포들을 보호해주시고 총련의 각계층 대표들을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막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동포 들, 나어린 학생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전설같은 사랑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인 재일동포들만이 받아안을수 있었던 만복임 을 우리들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절감하고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령도의 길에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거듭 주시였으며 강 성국가의 대문에 들어서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도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 자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총련일군들을 한전호속의 동지로, 재일동포들을 한식솔로 뜨겁게 불러주 시며 총련조직과 동포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며 자연재 해를 당한 동포들에게 사랑의 위문전문과 거액의 위문금까지 배려하여주 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총은 우리 재일동포들이 영원무궁토록 간직하고 살 아야 할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공화국창건절의 이 아침,우리모두의 가슴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으로 부풀어오르고있으 며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과 반미대결전도, 총련의 애족애국위업도 반드시 승리한 다는 철석의 신념으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조국수호의 최전방초소를 찾고 또 찾으시여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천 백배로 다지시고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자하시고 거룩하 신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충정과 흑모의 정으로 벅차오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선군령도와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 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서 우리들은 조국번영의 새시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였다.

재일동포들을 두러운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으로 여기시고 총련을 극 진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총련사업에 위대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력사적인 축하문 을 보내주시여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정녕 우리 조국을 백두의 혁명정신이 약동하고 승리와 번영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쳐나가는 불패의 강국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조국 과 총련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한없이 은혜로운 스승이십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심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겨 백두산절세위인들 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 대로 한치의 드팀도 없이 밀고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사 랑의 힘,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총련조직을 전통이 굳건하고 군중적지반이 강하며 전도가 양양한 위력한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각급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 들을 튼튼히 꾸리며 새 전성기 애족애국모범창조운동과 동포되찾기운동을 비롯 한 대중운동으로 광범한 동포들을 애족애국의 한길로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족교육사업을 애족애국운동의 중심에 놓고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민족과목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동포들의 지향과 지식경제시대

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강화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대로 새 세대들이 전통이 굳건 하고 계승이 위대한 총련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하 며 동포상공인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가슴 불태워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어머니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강성국가건설과 문명국건설에 특 색있게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조국통일 운동을 적극 벌리며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국제적위신을 높이고 총련의 합 법적지위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확대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주동적 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다음해에 맞이할 총련결성 60돐을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는 일대 정치적계기로 빛내이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진로를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어김없이 관철하여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가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백승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안녕은 우리모두의 최상최대의 행복이며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경모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3(2014)년 9월 9일 일 본 도 교 <u>L</u>________

교원, 연 핰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 처음으로 따들인 잘 익은 사과들을 신】수도의 대학 교원,연구사들이 자동차들에 가득 실어 평양으로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을 또다시 받 아안았다.

후대교육사업, 인재육성사업에 헌 신하는 교육일군들을 그 누구보다 아 끼고 내세워주는 당에서는 뜻깊은 공 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평양시내 주요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과일군 에서 수확한 첫물사과를 남먼저 안

겨주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과일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과일을 받아안은 감격에 대해 쳐나갈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떠나보내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

8일 새벽 뜻밖에 과일수송대를 맞이하게 된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들의 가슴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 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수 도의 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얼마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인 오 전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 절세위인의 숭고한 미래관이 담겨 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 져있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는 위대한 대강을 전달받은데 이어 친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이 어린

토로하였다. 교육자들을 위해 궁궐같은 살림집

들도 일떠세워주며 끝없이 베푸는 어머니당의 사랑에는 과학중시, 인 재중시사상을 받들어 후대교육사업 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바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한결같이 말하

수도의 대학 교원,연구사들은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로 주체교육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새 세대들을 강성조 선의 혁명인재들로 억세게 키우는 성 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

원 장

일조우호 야마나시현대표단을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8일 만수대의사당 나시현대표단을 만나 따뜻한 분위 참가하였다.

에서 의례방문하여온 가네마루 야 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을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 야마

여기에는 김정숙 조선대외문화련 락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위대한 수형 관일성동지미시는 1948년 12월 12일 / 사격광을 찾으시여 우리 로통제급이 처음으로 만든 기용은 등 시험사격하시고 군수용업이 나사는 열일을 합니다시었다 1949년 6월 16일에는 원에워는 제도가 환경일들다 항일의 녀성영웅 관정숙동지와 함께 이곳에 오세요 사격하시고 인민군대화 전혀 선명을 두성여일두가를 처음 더 좋게 만들며 대한 강경적의 분 위성하

선군혁명령도의 길우에 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되새겨보는 참관자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평천혁명사적지에서-

절세의 애국자,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창공 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펄펄 휘날 리며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존 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계 의 찬탄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 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라오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은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통일단결되여 있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비롯한 사회주의적시책들이 실시되고있 다, 특히 군력강화에 선차적힘을 넣고있는 조선은 온 사회에 군사 중시기풍이 차넘치고 전인민적인 방위체계가 수립되여 그 어떤 대 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

우월한 사회제도-조선민주주의인 제 국으로 전변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 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사람들이 실업을 모르며 녀성 들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나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다. 치료비, 집값, 세금 등 세계 어느 나라에나 공통적으로 존재 하는 어두운 그늘이 조선에는 없고 따사로운 해빛과도 같은 인민적시책만이 차넘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 여!》라는 구호가 사회생활의

계 회 모든 분야에 구현되고있는 조선 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와는 대비

조차 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사

회제도이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부위원 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살림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일자 리를 보장해주고있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려면 조선에 가보아

야 한다. 나라의 주권은 모두 인민들에 게 있으며 그들은 자기자신이 격

마음껏 누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 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네트홈 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 에 조선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가 훌륭히 일떠선데 이어 전국 도처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수

많이 건설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완공 된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미 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 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미래를 설계하고 참다운 자유를 문화휴식장소들에서 인민의 웃

음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려나오 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기네신문 《호로야》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 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용은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

하여 더 높이 떨쳐지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정치군사 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강국건 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

강국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 세기를 영 원 할 **01 04**

나라,내 조국의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발이 휘날 린다. 바라볼수록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그 위력을 비상히 강화 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누리 에 떨치시고 우리 조국이 부강번영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사회주의 조선의 꽃다발우에 력력히 빛발쳐와 사람들은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뜨거 운 가슴마다에 소중히 안는다.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열렬 한 칭송과 영생축원의 념원이 예순 여섯번째의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 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뜨 겁게 불타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합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우리 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태 여난 노래《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가 울린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해방된 조국땅, 민주의 터전우에 인민의 새 나라, 우리 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 에 선포하신 력사적화폭이 노래에 실

려 어려온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한평생 조국 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 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크나큰 로고, 헌신의 고귀한 결실이였다.그것은 진정한 조국을 그토록 갈망하던 우리 인민의 세기 적숙망을 풀어준 력사적사변이였고

사회주의조선의

일찌기 1 0대의 시절 열렬한 애 국의 뜻을 안으시고 조선이 독립하 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 어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인민정 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정권건설 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으며 영

민족의 대경사였다.

팡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항일전의 포연에 그슬린 군복을 벗 을새없이 불철주야의 헌신과 령도 로 해방된 조선인민의 드높은 건국 열의와 모든 애국력량을 조직발동하 시여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 며 이 땅우에 당과 군대를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침내 우리 공 화국을 창건하신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의 꽃다발우에 력력 히 빛나는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을 따를수록 그날의 화폭이 숭 엄히 되새겨진다.

마침내 건국의 력사적위업을 실현 하신 그날 어떤 가슴뜨거운 광경이 우리 수령님 댁에서 펼쳐졌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생토록 나라 의 해방과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열렬한 애국충정을 다 바치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여태 고생 만 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한잔 붓겠 소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 크나큰 의 미를 담아 술을 부으시였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시며 왜 아무것도 해 준것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당을 창건하고 군대를 창건하고 공화국을 창건한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한생에 쌓이고쌓인 원을 다 풀어주 시였는데 그것이면 더 바랄것이 없 습니다라고 삼가 말씀드리시였다.

백두산녀장군의 그날의 말씀에 우리 인민의 열렬한 심정이 그대로 어려있 어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얼마나 바라고 넘원하던 우리 공화

국인가. 간악한 섬오랑캐무리들에게 국토와 국권을 강탈당한 망국의 한에 가슴허비며 시일야방성대곡의 피눈

물로 이 땅을 적신 사람들, 진정한 조 국이 없고 국기조차 없어 국제체육무 대에 나서도 저주로운 일장기를 달아 야 했고 선수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 기를 지워버리고 사진을 냈다는 죄아 닌 《죄》로 류치장신세를 져야만 했던 이들이 바로 어제날의 우리 인민이였 다. 빼앗긴 나라와 국권을 되찾고저 만국평화회의장에 선혈을 뿌리며 그 토록 피타게 부르고불러도 대답없던

어제날의 조선이였다. 세계지도우에서 빚을 잃었던 조선이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대원수님 을 높이 모시여 마침내 자주독립국 가로 탄생하여 온 누리에 빛을 뿌리 게 된것이다.

그날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온 나라의 남녀로 소가 기쁨과 감격에 울고웃으며 터친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 이 오늘도 이 땅우에 메아리친다. 경축 의 광장에 너도나도 떨쳐나 3 0대의 건국수반이신 우리 수령님께 다함없 는 영광을 삼가 드리던 그날의 화폭 이 어려와 우리 가슴 벅차오른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그 나날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령도로 침략자 미제를 무자비하게 징 벌하시고 공화국을 수호하시는 크나 큰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페허로 된 이 땅우에 일떠선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흥하며 자위로 강대한 주 체의 사회주의강국,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 하여 복무하는 이 세상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창건과 더불어 우리 인민

의 자주적인 새 삶이 꽃펴나

게 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선언하시는 뜻깊은 말씀이

력사의 그날 군중대회참가

자들은 해방된 조국땅우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워

주신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 목

청껏 만세를 부르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국가주석이시다.

꽃다발우에 력력히

사회주의조선의 꽃다발우에 력력 히 빛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을 다 바치시여 높이 떠올리신 우리 공화국을 백두산대국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크나큰 업적이 빛 발쳐온다.위대하신 그이를 높이 모시여 우리 공화국은 력사의 시련 속에서도 온 누리에 그 위용 떨치 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업적은 사상 도 령도도 풍모도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인 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실현 하시여 성스러운 태양 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시여 공화 국을 명실공히 수령님 의 나라,수령님의 조국으로 빛내여주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에 찬탄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공화 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사 회주의강국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여 공 화국은 영원한 수령님 의 나라로 그 존엄 높 이 떨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 하고있는 주체의 나라!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인민대 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선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치는 불 패의 사회주의강국!

바로 이것이 위 대 하 신 대원수님들께서 창건하고 강화발전 시키신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공 화 국 이 야 말 로 우 리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승 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나라이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 한 사랑과 헌신으로 엮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

빛나는 자욱

유산이다.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 여 오늘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사회 주의강국으로 온 누리에 그 존엄을 높이 떨치고있다.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애국 헌신의 강행군길을 헤치시는 리와 번영의 한길을 걸어온 영광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속에 불길로

타번지는 애국의 뜻이 사회주의조선 의 꽃다발우에 력력한 빛을 뿌린다. 혁명과 건설을 오직 수령님뜻대로,

장군님식으로! 열렬한 그 뜻을 안으시고 오늘도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머지앉 아 이 땅우에 솟아오르고야말 강성 국가, 공화국의 창창한 앞날을 확신

하고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공화국의 수령복, 장군복 은 영원하다.위대하신 그이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 라, 인민의 나라로 길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의 존업과 불패의 위력을 떨쳐갈 신심과 결의에 넘쳐있다. - 만 수 대 언 덕 에 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민 족 사 에 빛 나 는 페 지

9월 12일에 있은 일

이다.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에 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 리에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정부수립을 경축하 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 민이 진정한 주인이 된 나 라가 창건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들먹이는 군중대회참가자들앞에서

선 군 정

주체 8 9 (2 0 0 0)년 1월 1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사회주의강성국 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 으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와 관련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

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 들에게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쥐 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 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 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

우 리 혁 명 의

주체 1 0 1 (2 0 1 2)년 4 월 1 5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

办

되였다. 이 날 경 애 하 는 원수님께서는 열병식연단에 거연히 서시여 시대와 력사. 인류앞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일성민족의 100년사 를 빛나게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 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 안광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주체 3 7 (1 9 4 8)년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입니다.…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 하시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 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지 를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인 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 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 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

> 지 의 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 지켜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고 말씀 하시였다.

>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 고있던 시기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 의 자욱자욱이 어려와 일군 들은 눈굽을 뜨겁게 적시

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 군들을 정깊은 눈길로 둘러 보시며 실천적투쟁경험은 우리의 선군정치야말로 가 장 위력하고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뚜렷

이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

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이 총 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끄떡없 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 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시고 드림없이 내세우 신 선군정치의 위력속에 우 리 조국의 끝없는 류성번영 이 있다는것을.

백 년 대 계 전 략 의 혁명위업을 한치의 드팀

도 없이 계승해나가실 확고 한 의지가 력력히 빛발치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 은 연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혁명의 백년

>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 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 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 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

승리가 있다고 힘차게 선언

대계의 전략을 받아안게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그날의 위대한 선군령장의 열렬한 호소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불같은 애국열로 끓 어번지게 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 답하여 태양민족의 휘황찬란 한 래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확신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린 혁명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 갈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성스러운 우리 조 국의 국호를 조용히 불러볼 때 면 천만군민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젖는다.

그럴수록 해방의 첫 기슭에서 옳바른 건국로선을 제시하시며 조국땅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를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령 도 자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빝에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

였습니다.》 해방직후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산시당을 찾으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게 된

일군들의 감격은 끝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 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 곳화국창건 30돐을 맞이 하던 무렵이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전국 적으로 국가표창사업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30년 의 력사와 더불어 뜨거운 애국 의 열정을 바쳐온 수많은 로동 자, 농민, 지식인들이 높은 훈장 과 선물을 받아안고 감격에 넘 쳐있었다. 사람들마다 어머니당 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계시였다. 이번 수훈사업에 혹 빠진 사람 이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던 주체 6 7(1 9 7 8) 년 9월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제기된 문건들을 하나하나 보아

로 꽃을 피웠다.

그들은 강도 일제를 때려부

시고 조국을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흠모 의 마음을 안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너무 기뻐 어쩔바를 몰 라했다.

감격을 금치 못해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자신께서는 금수강산에 부강 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할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제는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 도 끝장나고 우리 인민은 자유와 광명을 찾았으며 나라의 주인으 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게 되였는데 조국의 현실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해 방된 조선에 어떤 정권을 세우 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가 지 주장과 의견이 분분하다는데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공화국이 창건되던 시기 우리

그이께서는 선뜻 믿어지지 않

으시였다. 자료를 다시 자자구

구 따져보시는 그이의 마음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체없

주변사람들이 가슴가득 훈장

이 해당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을 달고 흥성이고있을 때 눈물

이 그렁하여 창밖만 내다보고있

었을 그 미술가와 가족들의

무거운 마음이 맺혀오시는듯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빨리 그

미술가를 찾아 선물을 안겨줄데

일군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

리 민족의 힘찬 기상과 창창한

다.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 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나라의 국장과 국기도안창작에

참가하였던 한 미술가가 수훈명

단에서 빠졌다는 자료였다.

참으로 무거우시였다.

자료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봉건정부를 복구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 식으로 정권을 세우려 하는 등 각이한 경향들 이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 게 우리앞에는 광범한 인민대중 에게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옳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 원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 들의 주장은 무엇인가고 물으시

일군들은 자기들도 혁명가들 인것만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쏘베트정권을 세우는것을 주장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들의 대답에서 다시금 조국 의 현실을 깊이 파악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 선은 결코 일부 사람들이 주장

미래가 담겨진 그토록 훌륭한 국

기와 국장의 도안창작에 참가한

미술가의 이름도 행처도 모르고

뿐만아니라 어떻게 그 미술

가를 찾을수 있겠는지 방도가

선뜻 떠오르지 않아 난감해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30

년전의 그 미술가를 찾아내자면

힘들수 있겠는데 누구에게 가보

면 알수 있을것이라고 친절히

일군들은 날개라도 돋친 심정

이였다.그들은 즉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일군을

찾아가 그를 통하여 여러 연줄

여러날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끝내는

그 미술가를 찾게 되였고 국장,

국기도안창작과 관련한 깊은 사

연들을 자상히 알게 되였다.

그들의 속내를 헤아려보신

있은 자책이 가슴을 쳤다.

국장, 국기도안창작가가

였다.

가르쳐주시였다.

을 톺아보았다.

하는것처럼 봉건제도를 복구하 거나 부르죠아제도를 수립하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되며 당장 사회주의길로 나아가서도 안된 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패망하였 으나 일제잔재와 봉건잔재가 많 이 남아있으며 그것이 우리 나 라의 사회발전을 심히 억제하고

혀 주 시

있다고 하시며 현 단계에서 조 선혁명의 성격은 의연히 반제반 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되며 우 리는 당면하여 일제잔재와 봉건 잔재를 숙청하고 나라의 민주주 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 혁명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수행하여 야 할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대 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고 일군들을 다정히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확신에 넘 치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이

창건되기 한해전부터 그를 조선

림시헌법제정위원회의 한 성원

으로 내세워주시고 그에게 국장

과 국기도안창작의 영예로운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국기와

국장은 어느 나라것과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이 되

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는

사연, 당시 반당반혁명분자들이

얼빠진 주장을 내대며 공화국기

의 흰 동그라미안에 보습을 그려

넣으라고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벼이삭테두리를 한 국장도안에

는 경복궁을 그려넣어야 한다고

책동하였다는 사실,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원쑤들의 책동이 낱낱이

분쇄되고 우리 나라의 국장과

국기도안이 훌륭히 완성되였다

일군들로부터 그 미술가를 찾

과업을 주시였다는 사실,

받아안은 사랑

의혁명단계에서 조선 이 나아갈 길은 진보 적민주주의의 길이며 해방된 조국땅에 세워야 할 국가는 민 주주의자주독립국가입니다. 이 것이 바로 우리의 건국로선이 며 인민대중이 념원하는 길입

반제반봉건민주주

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말씀 은 참으로 복잡한 주의주장들이 엇갈린 속에서 새 조국건설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이였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일군들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진보적 민주주의, 새형의 조선식민주주 의를 제시하시고 참되 이민의 새 사회를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의 뜻깊은 담화를 통하여 국내의 인사들에게 건국의 옳바

른 길을 몸소 가르쳐주시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았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 위대한 장군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시였던가. 그이께서는 건국의 나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충 직하게 받들었던 고령의 미술가 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

의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이제는 손에서 붓을 놓은지도 오래되였고 중병으로 신고하던 백발의 로인은 봄빛을 받아 청 춘의 활력을 되찾은듯 감격에

겨워 어쩔줄 몰라하였다. 오래동안 한인민반에 살면서 도 옛 미술가의 공적을 전혀 모 르고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부 러움의 눈길로 행복에 넘쳐있는 그를 보며 격정을 금치 못해하

였다. 지금으로부터 근 4 0년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혁 명전사들에 대한 고결한 사랑에 대하여 뜨겁게 새겨안게 된다. 본사기자 김 승표

유 립 동 맹 - 아시 아 러 대 丑 단 경 ㅂ 正 O 러 곳 Й

프레이저 캐머론 소장을 단장으로 하 는 유럽동맹-아시아 쎈터대표단이 만경대 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 은 손님들은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인 류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 대 한 수 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 명 력 사 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 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

방문을 기념하여 사 진을 찍었다. 이밖에 손님들은 주체사상탑과 조국해 방전쟁승리기념판 등 을 참관하였다.

유럽동맹-아시아 쎈러대표단 주체 사상탑 참관



윁 남. 라오스 방문 조선민주 녀 성 동 맹 대 표 단

였다.

웰남, 라오스를 방문하기 였다. 위해 채춘희 녀맹중앙위원 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녀성동맹대 표단이 8일 평양을 출발하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 들과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 도착

후꾸야마 마사끼사장을 단 장으로 하는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하 였다.

비행장에서 천일 조선중 앙통신사 부사장이 맞이하 였다. 【조선중앙통신】



응 당 한

해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이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 을 더욱 높이고있다. 얼마전 시적인 교육지원전시

회가 의의있게 진행된데 이어 현대적인 교육수단과 교구비품 들이 각급 학교들에 전달됨으로 써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업에 교육사업을 앞 세우며 후대들을 잘 키우는데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복종시 키는것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내세우신 중요한 방침의 하나 입니다. »

시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올해 학교들의 교육조건

본 분 으 로

과 교육환경을 발전하는 현실 적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속있게 짜고

는 이야기…

들었다. 특히 학교지원월간을 앞두고 시적인 교육지원전시회를 의의 있게 진행하여 교육사업에 대 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도록 하 였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를 비롯한 시급기관 일군들은 여러 교육단위들에 나가 교육사 업에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조 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많은 교육설비와 교구비품들을 마련하여 전시회

에 내놓았다. 특히 시인민보안서의 일군들 은 학교들의 실태를 료해해보

여기고

고 자신들이 앞장에서 미진된 전시품들을 다시 보충함으로써 교육지원전시회가 높은 수준에 서 진행되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수양산은하피복공장과 해 주백화점, 석천남새전문협동 농장과 장방협동농장을 비롯 한 시의 공장,기업소,협동 단체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도 학교지원사업에 적극 참 가하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의 일군들이 담당학교들에 나가 실 태를 알아보고 종업원들속에 정 치사업을 앞세우며 후원단체로 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지원열기를 더욱 높여주었다.

특파기자 리승철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참 조 의 열 정 아낌없이 바쳐가자

런 애국자들을 인민은 사 랑 한 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 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 입니다. »

어떤 사람을 인민이 사랑하

추억의 갈피를 번지느라니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뇌리를 친다.

모란봉구역상하수도관리소에 서 하수준첩공으로 일하던 리정 금녀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도 주민들을 위해 명절 날 온 하루를 바치고도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살림집들을 바라보며 긍지에 넘쳐 밝게 웃던 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

젊은 시절 누구나 선뜻 나서 기 저어하는 일터에서 묵묵히 일해온 리정금녀성, 종업원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일터 를 떠나던 그처럼 어려웠던 고 난의 행군시기에도 그는 자기가 맡은 초소를 지켰다.

남편을 잃고 가정의 부담을 작은 어깨에 걸머진 그를 위해 관리소에서는 리정금녀성을 다 른 작업반으로 옮겨주었었다. 그때 관리소의 일군을 찾아와

《저는 누가 가라고 해서나 갈 데가 없어서 하수준첩공이 된것 이 아닙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그토 록 마음쓰시는데 그것이 가슴아

이 한몸 바쳐서라도 수령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 자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판철 하자고 지금 모두가 애써 일하 고있는데 그래 내가 이 일터를 떠나야 합니까.》…

누구나 그때 그의 말을 들었 다면 가슴이 뭉클하였을것 이다.

나라가 어려웠던 때 자기 가정을 위한 길이 아니라 조국 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 깨끗한 량심을 바친 하수준첩공 리정금 녀성이다.

하수준첩공, 주민들이 사용하 고 버리는 오수가 생활에 지장 이 없이 잘 빠지도록 보살피고 관리하며 보수하는 사람이다. 지금도 이 직업에 대해 아는 사 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눈에는 잘 띄우지 않기때

그러나 지금도 수도의 밝은 거리에는 자기의 일터를 사랑하 며 일하는 하수준첩공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 잡고있는것은 무엇인가.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리라 는 티없이 깨끗한 마음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비록 크 지는 않아도 조국을 위하는 일 이고 인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 이기에 일터에 애국의 땀방울을 문으며 거기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어찌 이들뿐이랴. 그런 애국자들은 조국땅 어디 에서나 보석같이 빛을 뿌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태성할머니라고 값높이 불러주 신 김성녀일가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구봇령일가,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눈보라 휘몰아치고 비바람 세찰 때에도 자기가 맡은 구간의 도 로에서 애국의 삶을 꽃피우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아름다운것인가. 외진 산골에서 한생을 보낸다 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자 기보다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동무들과 같은 애국자가 많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 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 사랑,그 믿음을 안고 구봉령일가는 오늘도 그 길을 쓸고 또 쓴다.

선군시대 공로자로 인민의 사 랑을 받는 로력영웅 문강순동무 의 삶도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을 위한 애국의 마음을 먼저 짠 직포공 문강순동무, 인민생활에 는가. 이바지하게 될 천을 짜는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하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위해 처녀시절을 보람있 게 산 그를 시대앞에 내세워주 시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세대 직포공인 그에게 거듭 거듭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 며 애국자로, 선군시대 공로자 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루 100여리를 웃으며 달려온

애국자. 부강할 조국을 위해 힘과 지 혜를 아낌없이 바쳐가는 수많은 애국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 에 다가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자연개 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청천강계단식 발전소건설장, 고산과수농장건 설장을 비롯한 나라의 전구들마 다에서 자연을 길들이며 청춘의 위용을 떨치는 개척자들, 한개 단위, 한개 작업반을 책임지고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해 밤잠도 잊고 뛰여다니는 일군들, 항상 자기 직업에 애착을 가지고 조국 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선군시대 공

로자들과 일터의 혁신자들… 이들의 가슴속에는 하나의 물음이 간직되여있다.

-내가 흘리는 땀에 애국심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행복을 닫아

의 편지는 실로 감동적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야말로 자기들에게 분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

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평양시 락랑구역 정오2동에

서 살고있는 28살의 조명심은

지난 5월 뜻밖의 사고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그는 당시에 내려진 의학적결

론으로 하여 앞날에 대한 희망

과 포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것은 물론 한쪽눈까지 잃게 된

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의 눈앞

은 캄캄했습니다. 가족들과 이

웃들은 나에게 실망과 동정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머리속에는

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잊지 못하고있다.하기

에 우리 농민들은 군대와 함께

강하천들에 보막이를 하고 졸짱

뿌려 왕가물과 고온속에서도 곡

식들이 푸르싱싱 자라게 한것이

어찌 그뿐이라. 농업전선을

《왼쪽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되였던 심정을 이렇게 썼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

령 도 자

위 대 한

같이 지적하시였다.

확신하고있습니다. 》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얼마나 스며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라에 얼마나 보탬을 주

0

어

퓓

그들은 밥을 먹을 때에도, 일 할 때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늘 이 물음을 안고 산다.

그래서 그들은 일터에서, 가 정에서 혁신과 창조의 낮과 밤 을 이어가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아글타글 애쓴다.

자기가 하는 일이 크든작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웃으며 헤쳐가고 밤길 도 기꺼이 걷는 사람, 한 가정의 행복보다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먼저 생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 의 사상과 의도를 한몸바쳐 받 들어갈 한마음안고 사는 사람, 남의 그늘밑에서, 남의 덕에 곰 팽이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사회주의를 수호하 기 위한 판가리결사전으로 여기 며 열흘, 백날에 할 일을 하루에 해제끼는 사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 시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애국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조국과 인민은 제일 사랑하고 잊지 못한다. 그런 삶이 조국을 위한 삶이 고 어디서나 보석처럼 빛나는 애국의 삶이거늘 우리모두 애국 에 살자.우리 원수님께서 아시고 인민이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살자.

본사기자 오은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 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아름다운 거리와 함께

평천구역도시시설관리소 자욱을 새기였다. 그때부터 천리마작업반의 김정실동 무는 꽃나이처녀시절부터 근 3 0년을 도로관리원으로 일 하고있다. 꿈많던 그 시절에 그는 다름아닌 여기 도시시 설관리소에서 사회생활의 첫

화대군 읍협동농장 제2 작업반 반장 조금희동무는 작업반의 포전에 진심을 묻 어가는 실농군이다.

오래전에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꽃피울 불같 은 마음을 안고 농장으로 자 원진출한 그는 한알의 낟알 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일하였다. 처음에 는 농사일이 손에 익지 않아 애도 태웠지만 그는 이악하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

업소 령대란광 설비보수직

장 직장장 림일환동무는 나

라의 석탄생산을 위해 자신

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

쳐가고있다. 중학교를 졸업

한 후 지난 30여년간 설비

보수직장에서 일하면서 그

는 전동기, 변압기, 용접기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립도 없이 제때 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이 진짜애국자입니다. »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 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난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김정실동무는 나라의 얼굴인 도로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의 진정을 아낌없이 바 치였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퇴약볕이 내

말건 진심을 바쳐가며 자기 초소를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 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 사 람들은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마련이다.

그는 하루도 쉬임없이 수도 의 거리를 지켜 묵묵히 일해 왔다. 언제나 환하고 깨끗한 거리의 모습은 김정실동무의 마음을 비쳐주는 거울과 같 다. 하기에 거리를 오가는 사 람들은 김정실동무를 비롯한 도로관리원들을 언제나 정다 운 눈길로 바라보는것이다.

나 라의 독을 지 켜

게 노력하여 얼마후에는 혁 신자로, 분조장을 거쳐 작업 반장으로 되였다. 작업반장 으로 일하면서 그는 작업반 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 로 일하도록 이끌어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하였으며 작업반을 혈육의 정 넘치는 집단으로 꾸려나 갔다.이 나날에 그는 작업

등 많은 탄광설비들을 제때

에 수리보수하여 석탄생산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라는것을 깊이 자각

한 그는 자신의 기술기능수

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

력하였으며 이 나날에 여러

건의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려쪼이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르고있다. 기술혁신으로 설비수리를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

반을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본보기단위로, 3대혁명붉은

기를 수여받은 단위로 변모

시켰다. 비가 오나 눈이 오

나 늘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

면서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

워가기 위해 애쓰는 조금희

동무를 농장원들은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정담아 부

였다. 언제인가 탄광에서 철탑 공사가 진행될 때에도 그는 기발하 착상으로 그처럼 어 렵다던 철탑조립을 직장자 체의 힘으로 와닥닥 끝내도 록 함으로써 사람들의 감탄 을 자아냈다.

본사기자 홍성철

출 간 기 다 . 게 도부 우 예철 OH 격 국대 의평 바단

청남장공장 자 재 부 원 나와 박춘식동무는 자기 사업에 대 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30 여년을 하루와 같이 공장의 생 산정상화를 위해 남들이 알게 모르게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

그는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자재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 심하고 언제나 남먼저 일터에

그날 생산과 수송에서 제 기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미 리미리 알아보고 하루일과를 시 작하군 한다. 어느날 높아지는 생산실적에 비해 석탄보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해 생산에서 지장을 받게 되 였을 때였다. 그는 대중의 앞장에 서서 진

한 땀을 흘리면서 필요한 량의

내리였다. … 올해 1월부터 8

월까지의 강수량은 4 1 6 mm로서

나라없던 그전 세상같으면

농사를 망치게 했을 백년왕가물

100년동안에 제일 적었다.

이였다.

卫 보장하여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 적으로 하면서도 뜨거운 인정미 를 지니고 함께 일하다가 먼저 간 동지들의 가족들과 종업원들 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 고있다.

로농통신원 박금실

도 물이 없으면 타죽고마는것이

1정보의 한해벼농사를 짓는

정도 쓰인다고 보아도 전국적으 과 굴포, 우물을 만들어 단비를

였다.

데 물이 대략 1정미 즉 1만m³

로 필요한 물량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하늘도 주지 못한 이 많

은 생명수를 그 누가 주었는가.

곡식이다.

사회주의제도를 각지에서

온통 생에 대한 좌절감만이 그 각지 독자들이 본사편집국앞으 로 수많은 편지들을 보내오고있 득히 차오르고있었습니다. 그러 다. 그중에서도 자기의 실지체험 나 그 시각에도 사회주의보건제 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 도의 따뜻한 손길이 저의 병든 몸을 감싸안고있었습니다. 건제도의 고마움을 느낀 독자들

> 안과 과장선생님을 비롯한 의 료일군들은 앞길이 구만리같은 처녀인데 어떻게 쉽게 결론을 내 리겠는가고 하면서 무조건 완쾌 시킬것을 결의해나섰습니다. 밤 낮이 따로 없는 과의료집단의 치 료전투가 시작되고 값비싼 약물

들이 주입되였습니다. 병원에서 는 저를 위해 눈치료와 함께 여 러가지 기능회복훈련도 하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었습니다. 많은 의료일군들이 치료외에 도 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 약들과 별식들을 가져왔으며 생

일날에는 축하의 꽃다발도 안겨 수었습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크나큰 혜택속에서 두번다시 생을 받아 안은 고마움을 두고 처녀는 계

속하여 이렇게 토로하였다.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 환자의 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날까지도 따뜻이 헤아려주는 품에 안겼기

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

담대한 배짱으로 풍년지름길을

개척해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로고와 헌신이 안아온것이였다.

나의 눈앞에는 위대한 사랑속

하게 펼쳐졌다.

아니랴.

더욱 보 내 온 편 지 들 을

합니다.》 수안군 옥치리에서 살고있는 는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고 어 한 녀인은 자기를 위해 매일과 디 가나 존경해주고있다고 하면

의료일군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여왔다. 《가정을 이룬지 몇년이 지났 지만 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 다. 그런데 어느날 저의 마음속 고충을 어떻게 알았는지 수안군 인민병원의 한 의료일군이 저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친 언니의 심정으로 저의 병상태를 알아보며 치료를 잘하면 된다고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부 터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의 치료를 위해 수십리길을 걷

같이 수십리길을 걸으며 뜨거운

정성을 기울인 수안군인민병원

군 하였습니다. 마침내 귀여운 옥동녀가 태여 나 온 가정의 기쁨을 더해주었 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사는 곳은 깊은 산골이여 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운

손길이 언제나 닿아있습니다.》 강동군 속추로동자구에서 사 는 신용철할머니는 편지에서 자 본주의사회에서는 청소년자살 자들까지 생겨나 사회적골치거

보고 리로 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서 복락을 누려가는 긍지높은 삶에 대해 이렇게 토로하였다. 《흔히 사람들은 오래 살면 명이 길고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생말년에 느끼게 되는 것은 명이 길고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제도에서 살기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심하게 앓게 되였을 때 일부 사 람들은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하 였고 저도 마지막이라고만 생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시제 2 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은 온밤을 지새우며 치료전투를 벌려 끝끝 내 저를 소생시켜주었습니다. 제 가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제일로 내 세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

제도가 있었기때문입니다.》 한생을 중앙병원에서 구강과 의사로 일했다는 모란봉구역 흥 부동의 리원경할머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마련된 류경 구강병원을 돌아보고나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편지에 담았다.

《우리 인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고있는것

을 보고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 었습니다. 나도 한 10년만 젊 었으면 모든 치료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여기에서 온 갖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 해주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의 마감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 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현대 적인 병원들이 일뗘섰다고 하면 서 이는 오직 인민을 위해서라 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해서만 꽃 펴날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이 라는데 대해 긍지높이 썼다.

참으로 새 삶을 받아안은 체 험자들과 그 생을 이어준 의사 들까지도 스스럼없이 느끼게 되 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 과 귀중함!

각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들 마다에는 생명보다 귀중한 사회 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주고 빛 내여주시며 지켜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 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와 함께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한 길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갈 굳은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

본사기자 김옥별

얼마전 나는 취재지선정을 놓 해 여름철에는 61%밖에 안되 고 한동안 마음을 썼다. 100 는 358mm의 매우 적은 비가 년만에 처음 보는 왕가물이 든 올해여서 서해벌방에서 농사가 잘된 단위들을 찾기 힘들것이라 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래서 먼 저 전화로 알아보기로 하였다.

《왕가물이라니?! 지금 벼알 들이 한창 잘 여물고있습니다.》 룡천군 한 일군의 뜻

밖의 대답이였다. 순간 기쁨보다 의문 이 앞섰다. 룡천벌사람 들은 올해에 백년왕가 물이 들었다는것도 모 르고 농사를 지은것이

아닌가.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개천-래성호불 길공사의 성과에 로대하여 평안북도와 황해북도를 비롯 하여 여러 지대들의 자연흐 름식불길공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힘있게 내밀어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 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기상수문국의 이런 자료가 뗘 올랐다. 우리 나라에서 보통 여 름철 3달동안에 583mm정도 의 많은 비가 내린다. 하지만 올

기를 들었다. 태천군 은흥, 운전 군 삼지강, 안악군 오국, 강서구

습니다.》

생각이 깊어졌다. 예로부터 농사에서 물은 생명 수라 하였다. 아무리 땅을 걸구

을 세우고있다.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의 보호원칙에 맞게 물도랑정

있다.

어버이수령님, 의 예지로 우리 나라 관개력사 화를 무맥하게 만들었다. 고 정력적인 령도로 로동당시대

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힘

백년력사에 이런 기적이 언제 있었던가.

목이 메여올랐다.오늘의 대기적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강인

이 사랑이다. 그래서 백년왕가 물도 위대한 사랑의 힘앞에 무 릎을 꿇은것이리라. 사회주의전야는 이렇게 전하 는듯싶었다. -백년왕가물을 이겼다. 절세 의 위인들의 열화같은 조국애와 인민사랑이 자연의 횡포를 물리 쳤다. 복받은 우리의 농민들은 오늘

전설로 대대손손 길이 전해갈것 이다. 과 본사기자 래명호

년보다 11~37mm, 지난해에 비하여 20~83㎜ 많을것으 로 예견된다.

니다.»

다 0.5~1℃ 에 비하여 전반 적 지 방 에 서 0.6~1.8℃

1 1 1 mm로서 평

and the discussion of the disc 하며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 에서 논물관리를 잘하도록 하여 야 한다. 토양의 물기상태와 논 벼의 생육상태를 고려하면서 포 화수식 및 간단물대기방법으로 물관리를 진행하여 논벼의 물과 영양물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

> 다음으로 여물기과정에 대한 조사를 잘하여 수확적기를 정확 히 판정하며 그에 맞게 논물뗴 는족족 수확할수 있도록 하여야

논벼의 수확적기판정은 벼알 의 색갈변화를 조사하여 할수

수확전 논물뗴기를 제때에 하

품종별논벼의 이삭팬 시기와 이 높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

고있었다. 에서는 수확하기 5~7일전에 논물을 뗴는것이 좋다. 특히 물 이 잘 빠지지 않는 논들에서는

강냉이는 품종에 따라 개꼬리

강냉이가 완전히 여물면 낟알 에 윤기가 돌면서 이삭끝의 알 을 손으로 눌러도 자리가 나지 않는다. 알밑부분에 검은색의 분리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형태학적특징변화에 기초하여

강냉이수확을 잘하여야 한 다. 수확은 대를 베고 이삭을 따 는 방법과 이삭을 따고 대를 베 는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다. 이 삭을 오사리채로 운반하여야 한 다. 낟알털기를 제때에 하여 숨 쉬기에 의한 영양물질소비로 천 알무게가 떨어지는것을 막아야

농작불생육예보지휘부

나는 저도모르게 다시 송수화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

군 운하협동농장, 숙천군 열두 삼천농장, 사리원시 미곡, 재령

《벼알들에 살이 푹푹 오르 는데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 니다.》

《우리 농장원들이 막 사기났

졌다. 일찌기 수리화의 과업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떠나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 제시하시고 몸소 저수지와 물길, 양수장자리도 잡아주시면 서 현명한 령도로 우리 나라를 관개의 나라로 전변시켜주신

봄철에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각 지 농촌들에서의 가물피해막이 고 알알이 고른 종자를 뿌렸어 전투를 도맡아 해제끼도록 해주

물보호사

오래된 나무들에 대한 구새막

이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

행하여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거목들이 지금도 잘 자라도록

또한 자체의 힘으로 수백㎡에

해

하고있다.

남 도 에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나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단 지모, 이른큰모, 소식재배를 비 롯한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고난의 행군시기에 천리혜안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하늘의 조

>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굳세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오리나무, 참나무를 잘 가꾸 루의 나무심기를 진행하여 희귀

> 이밖에 도에서는 배천군의 연 안온천, 옹진이팝나무를 비롯하 여 새로 등록되거나 이미 있던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관리

에 솟아난 서흥호, 은파호를 비 롯한 대인공호수들과 연연히 뻗 어간 개천-태성호물길, 백마-중 철산물길, 미루벌물길의 생명수 를 마음껏 들이키며 좋아라 춤 숟 을 추는 벼바다가 흐뭇 정녕 9월의 맑고 푸 른 하늘아래에 펼쳐진 凡 협동벌의 모습은 절세 의 위인들의 이민위천 의 숭고한 뜻과 사랑을

वो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 互 의 대기적을 로동당시대의 새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다음과 같이 9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 《무입당면역 이 제한되어있

는 우리 나라에 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 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 체농법의 요구 대로 농사를 과 학기술적으로 **プト** 지어 정보당 수 화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약 한 북서태평양고 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이 동성고기압과 저 기압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견 된다. 9월 중순 평균기온은 전반 적 지 방 에 서 マハ 방에 서 14.3~21. 7℃로서 평년부

> 낮을것으로 보고 있다. 9월 중순 강수량은 전반적 지방에서 34~

논벼농사에서는 잎과 뿌리의 기능을 높여 여문률과 천알무게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우선 왕가물이 지속되는 조건 켜주도록 하여야 하다.

기를 제때에 하여 벼알이 여무

있다.이삭에서 푸른색의 알비 률이 10~15%이하로 되는 시기를 수확시기로 볼수 있다. 또한 해당 지방에서 올해 논벼 의 이삭팬 시기와 일별평균기온 관측자료에 기초하여 여무는 기 간의 생육적산온도를 계산하고 지난 시기의 품종별 이삭패는 시기에 따르는 여물기기간의 생 육적산온도와 대비하여 품종별 수확적기를 결정할수 있다. 수 확적기판정은 벼알의 수분함량 을 측정해서도 할수 있는데 수 분함량이 20%로 되는 시기에 높겠으며 지난해 가을하면 좋다.

여 가을걷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문 상태, 논토양조건을 고려 하면서 논물뗴기를 적기에 하며 논물을 일찍 뗴여 논에 금이 가 면서 뿌리가 끊어져 여물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땅속물층 이나 질흙, 질메흙논에서는 수 확하기 1 0 일전에, 물이 잘 빠 한다. 를 높일수 있도록 물판리를 잘 지는 논이나 모래기가 많은 논

포전둘레나 포전가운데에 물도 랑을 내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하 여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수확시기 를 정확히 판정하고 가을걷이를 제때에 진행하는데 중심을 두어 야 한다.

가 나온 때부터 다 여문 때까지 의 기간이 다르므로 품종적특성 과 올해 개꼬리 나온 시기 자료 에 기초하여 수확시기를 정할수 있다. 중간늦종강냉이는 수정후 50~55일이 되면 완전히 여 물지만 늦종강냉이들은 수정후 60~65일까지도 천알무게 가 늘어나므로 이러한 품종적특 성을 고려하여 수확시기를 정하 여야 한다. 또한 낟알의 물기변 화동태를 조사하여 수확시기를 예측할수 있다. 수정후 35~ 4 0일경에 낟알의 물기함량을 측정하고 낟알의 일평균물기감 소률(0.7%)에 기초하여 낟알 물기함량이 29.5%로 되는 날자를 계산해서 수확시기를 정 할수 있다.

수확적기를 판정할수 있다.

있다.

과 샘물, 약수, 희귀한 새와 나 무를 비롯하여 이 지방에 고유 한 천연기념물들이 많다.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천연기념

물들을 적극 보호하고 번식,

황해남도에는 이름난 온천들

각종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어 소문난 삼천군의 종달온천에 나 간 일군들은 온천의 용출량을 시간별, 날자별로 측정하고 그 량이 줄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 명, 신원쌍둥이느티나무 등 의 보호구역에 1만 5 000여그 고있다.

역 청산협동농장…

들려온 말은 하나같았다. 그 러니 백년왕가물에도 농사를 걱 정없이 짓고있지 않는가.

천 연 기 념

송화, 옹진온천이 천연기념물

리와 페수처리, 주변정리가

늘 깨끗이 되여 인민들의 치료

와 건강회복에 널리 리용되고

도에서는 벽성석담, 봉천신

상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의 자 연흐름식물길건설을 구상하시 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일뗘세 우리 농민들은 오늘도 올해

원수님,

한 새들의 식구가 더욱 늘어날 수 있게 해놓았다. 은률군에서는 우리 나라의 특산종으로 유명한 구월산애기 개구리가 살고있는 물웅뎅이들 달하는 양묘장을 만들고 배천 에 대한 관리사업을 정상화하여 홍현백로살이터와 봉천클락새 그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게 하

어 새의 번식에 좋은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온 벽성군에 서는 천연기념물인 사현왜가리 가 올해에만도 40여쌍이나 날 아와 번식하여 인민들과 청소 년학생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9월을 맞을 때면 남 의 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적중 녘인민들은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혔던 조국강토를 찾아주시 고 이 땅우에 민족사에 처음으 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그 강화발전을 위해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터치군 한다.

서울에서 진행된 어느 한 모 임에서 향일회 회장은 이렇게 격조높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반 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민족의 한울님이시고 건국의 어버이이시다. 칠칠암야에 혜성처럼 출현하시여 왜놈의 마수로부터 겨레를 구원해주시 고 해방된 조국땅에 민중이 주 인된 새 나라를 세워주신분은 바로 김일성주석님이시다. 민중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중속에 계시면서 오직 민중만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펴시였기에 이 북은 그야말로 세계가 찬미하 는 인류의 리상향으로, 겨레모 두의 참다운 조국으로 될수 있

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어느 한 모임에서 《공화국이 지닌 높은 영예와 존엄, 이북인민이 누리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 이 모든것은 건국의 어버이이 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 다. 》라고 하면서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이렇 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방후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 었다.

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 조선적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 하시였으며 이어 인민대중중심 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 신것으로 하여 건국의 어버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칭송받고계신다.》 남녘의 한 지식인은 공화국 기발을 동료들앞에 내놓으면서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였기에 공화국은 강위력한 자주독립국 가로 온 세계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으며 이북민중은 사 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 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는 인 민으로 되였다.》라고 말하

언제인가 전라북도 전주시내 에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4 **.** 1 5 동지회의 명의로 된 인 쇄물이 수많이 배포되여 파문 을 일으킨적이 있었다.

인쇄물 앞면 웃단에는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어버이수렁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고 그아래에 《공화국의 창건자 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글발이 씌 여져있었다. 뒤면에는 《근로민 중이 누구나 다 평등하며 자유 와 권리를 향유할뿐아니라 민 중이 주인된 민중중심의 복지 사회를 펼쳐가는 정권, 이것이 이북땅에 거연히 솟은 진정한 민중의 정권이다.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고 건국의 어버이이 시며 민족사에 영원할 영웅

이시다. 》라는 글이 씌여져있

인쇄물을 본 사람들은 저저 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 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 서 《김일성주석님의 건국업적 은 만대에 불멸할 성스러운 업적이다. 》라고 격정을 터치였

부산의 한 주민은 마을사람 들에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첫 로동자, 농민의 국가를 일뗘세우시고 그들을 나라의 주인, 정권의 주 인으로 내세우시였다.진정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북에 세우 신 로동자, 농민의 정권은 민 중의 삶이 꽃피는 행복의 요람 이다. 》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해방 을 이룩하시고 세우신 공화국 은 만민이 동경하며 희망의 등 대로 바라보는 민중의 참다운 조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 을 뿌리고있다. 김일성주석님 의 좌우명은 이민위천이였고 그분의 정치철학은 민거백승이 였다. 공화국이 지닌 높은 영예 와 존엄, 이북인민이 누리는 행 복하고 보람찬 생활, 이 모든것 은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로고의 고귀한 결실

이다. 》 남조선의 출판물에 실렸던 길지 않은 이 글에도 공화국북 반부에 인민대중의 참다운 삶 의 터전, 행복의 요람을 일뗘 세우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다함없는 경모와 그리움의 정이 뜨겁게 어려 있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남조선의 한 재야인사는 《김일성주석님 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 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 시고 당대에 한 나라, 한 민족 을 진보와 번영의 높은 령마루 에 올려세우신 위인은 없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 고 민중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 신 그런 수령, 그런 령도자는 세상에 오직 한분 김일성주석님

뿐이시다. 》라고 하면서 인민이 주인된 참다운 자주독립국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를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 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여주신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 는 흠모의 정을 터치였다.

어느 한 시민단체성원은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찌기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 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그 날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자주독립과 겨레의 행 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 였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민중 들속에 계시며 민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민중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락으 로 여기시였다. 그분께서 우리 민중과 인류를 위해 쌓으신 업적을 어찌 글이나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라. 》라고 격정을 터놓았다.

서울의 어느 한 대학교에서 있은 토론회에서는 이런 찬탄 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일뗘세우

신 공화국은 민족의 넋이 살아 숨쉬고 민족의 존엄이 빛을 뿌 리는 민족의 성지이다. 이북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지켜 주고있다.》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민중중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시고 민족 분렬의 고통을 가셔주시기 위 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로고 를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 친다.》

민

H٠

0

년

0

0

01

다에는 필승불패

의 선군정치로 우

, 리 조국을 정치사

상강국, 군사강국

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신

백두의 천출명장

위대한 김정일동지

에 대한 절절한

어찌 그렇지 않

겠는가. 지난날 국

력이 약한탓으로

식민지노예의 운

그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제

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백전백승만을

떨쳐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

다. 반만년민족사

에 일찌기 있어본

적 없는 이 놀라

운 현실은 바로

탁월한 선군령장

이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다.하기에 남녘겨레들도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위업실현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대한 칭송의

《민족의 운명과 선군정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가한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자주정치,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예

목소리를 한껏 터치고있다.

절 명을 강요당하였 던 우리 민족은

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이 주인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 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 한 남녘겨레의 절절한 흠모의 정은 대원수님들의 뜻을 빛나 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으로 불타오르고있다.

남 녘 의 인 민 들 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사상과 령도,인품에 있어서 일 성 주 석 님 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과 꼭같 다.》, 《그이의 름름한 모습을 뵈올 때면 마치도 김일성주석님 을 만나뵙는것과 같은 느낌이 다. 》라고 자신들의 심정을 토 로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따라 자주통일위업을 이룩 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힘차 게 벌려나갈 의지를 가다듬 고있다.

우리 민족이 받들어모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 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세만세 길이 빛날것이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롭게 수호하시였고 강성국가건설 영광스러운 우 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 리 조국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창 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격정을 건 66돐을 맞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온 겨레의 가슴마

《북에서는 김정일장군님을 199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 이 추대하였다. 그분께서는 선군 정치에 기초하여 국방위원회를 중 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령도체계를 수립하시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한층 격렬해진 북미대결전 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면서 선군정 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오늘 북이 정치사 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며 경제강국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것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가 있었기때문이다.》

한 시민사회단체의 성원도 《일찌기 위대한 백두산총대가정 에서 탄생하시여 총과 숨결을 같이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력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제 국주의련합세력을 격파하고 조국 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 을 수호하시였다. 제국주의강적들 도 감히 범접을 못하는 나라, 외부 의 그 어떤 압력과 제재가 통할수 없는 나라, 자주와 존엄에 사는 강 대한 나라가 바로 이북이다.

약소국으로부터 강대국으로! 민족의 지위와 운명에서 이토록 거대한 전변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 날것이다. 》라고 자기의 마음속 진정을 터치였다.

한 재야인사는 《오늘 북은 정 치의 대국,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북은 령토나 인구면에서 크지 않 지만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련승 하면서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이 처럼 막강한 북의 위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북이 다른 나라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령도 를 받았기때문이다. 북의 위력은

곧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위력이 다. 》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필승불패의 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에 대 하여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 은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동료 들에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선군령도에 의해 이 북의 사회주의는 인류리상사회 의 최고봉에 올라섰다. 선군정치 의 위력으로 존엄떨치고 승승장 구하는 이북의 사회주의는 그 어 떤 힘으로도 허물어버릴수 없는 위대한 결정체이다. 》라고 자기 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한 광주의 한 기업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야전차를 집무실로 삼으 시고 눈바람, 비바람을 다 맞으 시며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 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제국 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번영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 하시였다. 》라고 자기의 글에서 격조높이 웨친 대구의 한 지식 인, 《김일성주석님을 높이 우려 러모시고 수령님의 력사가 영원 히 흐르도록 해주신 도덕의리의 최고화신도, 세계정치동란속에서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 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하신 창 조와 건설의 영재도, 제국주의반 동세력의 공세를 짓부시고 조국 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 히 지켜주신 절세의 애국자, 천하제일명장도 김정일장군님이 시다. 》라고 격찬한 통일애국청 년회의 회원…

비록 직업과 사는 곳, 정견과 신앙은 서로 달라도 남녘의 각계 층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백승 의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민족번영의 일대 전 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그리움의 정이 세차게 끓 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십 철 영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창건 66돐 경축행사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표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 66돐에 즈음하여 중국,윁남, 에짚트, 인도네시아, 우즈베끼 스딴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서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연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

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대원수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가 모셔져있었으 며 그앞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

이 놓여있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공 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 부, 정당, 군부, 단체, 기관의 인 사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그리고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국

削

ᄽ

多

व्य

있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 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하 는 새시대를 열어놓은 사변이였 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

지난 66년간 조선인민은 조 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 의혁명과 건설위업에서 끊임 없는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

였다. 우리는 이를 열렬히 축하하며 조선인민이 앞으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 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윁남외무성 부상은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웰남인민은 조선인민이 66년 간의 빛나는 력사적과정에 이룩 한 커다란 성과들에 기쁨을 표

시한다. 우리는 윁남과 조선사이의 친 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령도자들 의 깊은 관심속에 두 나라 정부 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서로의 리익 그리고 지역과 세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 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 에 적극 기여하리라고 확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제1비서동지 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은 사 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인도네시아대통령자문리사회 고문은 공화국창건 66돐을 맞 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 문, 잡지가 특집하였다.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마이》 2일 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라는 제목 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일성주석은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 시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인민 의 나라를 일뗘세우실 원대한 뜻을 지니시고 자주적립장에서 각계층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인민정권건 설의 길을 개척하시였다고 지적 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 방직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

66년력사는 식민지약소국가였 던 조선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자랑찬

여 기쁘게 생각한다.

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 나라 신문, 잡지 특집

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계시면 서 나라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 그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 숭고 한 경의를 드린다.

기네신문《호로야》2일부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 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후 사회주의강국으로 강 화발전되여왔다.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과 뜨겁게 포옹하시면서 귀속말 일뗘세우시였다.

주석의 위업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 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수호하 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새시 대를 펼쳐놓으시였다.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 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용은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 하여 높이 떨쳐지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정치군사 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강국건 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

개의 도시들에로 확대되였다.

8월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자주 의 강국》, 《선군의 위력으로》 등 제목의 글을 실었다.

잡지는 《인민적령도자의 풍모》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령도자의 인민사랑은 국 제사회계를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들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과 인민들을 만나시여서는 그들 도 나누시고 어린이들이 무랍없 이 올리는 청도 들어주신다.

그이께서 수놓아가시는 인민 사랑의 숭고한 화폭은 그이께서 지니신 투철한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사랑은 김정은령도자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 이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령도 밑에 조선의 인민생활향상을 위 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 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 장 등 문화휴식장소들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 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조선중앙통신】

레로반대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 타가 2일 대륙의 평화와 안전 에 관한 아프리카동맹 수뇌자회 의에서 연설하면서 테로와의 투 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지금 테로분자들의 극악무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엄 격한 법적조치들을 취해야 할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한 행위로 말미암아 아프리카는

테로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대륙나라들이 테로

유럽동맹의 새로운 대로씨야제재 반대 슬로벤스꼬정부는 로씨야에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쎄르게 이 나리슈낀이 1일 프랑스의 수 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서 방의 제재를 비난하였다.

그는 단체나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제재는 무의미하며 유럽의 《민주주의전통》에도 배치된다 고 강조하였다.

한편 로씨야에서 많은 주민들 이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맞서 나가는 정부의 립장을 적극 지 지하고있다. 8월 22일 전로사 회여론조사쎈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4%가 미국과 서방나라들로부터 식료품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정부의 대응조치 에 지지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슬로벤스꼬수상 로베르뜨 피 쪼가 4일 한 회견에서 유럽동 맹의 대로씨야제재가 실패를 면 치 못하고있다고 조소하였다.

그는 동맹의 제재에도 불구하 고 그 성원국들의 각종 상품들이 여전히 로씨야에 들어가고있다 고 하면서 이 제재가 소기의 효 과를 보지 못하고있으며 로씨야 의 태도에서도 아무런 변화를 가 져오지 못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대한 유럽동맹의 제재조치를 반

대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쓰르비아수상 알렉싼다르 부 취츠가 최근 로씨야에 대한 서 방의 제재를 반대하는 자기 나 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최근 로씨야에 대한 수 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 어 떤 조치도 취하지 말데 대한 유 럽동맹의 요구를 단호히 배격하 였다. 그는 로씨야와 좋은 관계 를 가지는것은 쓰르비아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으로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끼쁘로스외무상이 최근 유럽 동맹 비공식외무상회의에서 연 설하면서 동맹이 준비하고있는 새로운 대로씨야제재를 반대하 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제재를 강요한다고 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우크라이나위기가 군 사적방법으로 해결될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는 유럽동맹 이 정화를 보장하기 위한 회담 에 노력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 씨 야 에 서 로씨야가 해군무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그 한 고리로 최근 《야쎈》 급 핵잠수함 《쎄베로드빈스 크》호가 백해수역에서 시험

항행을 하였다. 시험항행과정에 미싸일이 성과적으로 발사되였으며 핵잠수함의 성능이 확인되 였다 한다.

3일 이따르-따쓰통신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이 란 에 서

이란이 최근 새로 개발한 2 대의 국내산 무인기들을 공개 하였다. 《싸데크》로 명명된 무인 기는 발사대에 의해 리륙하 며 앞부분에 촬영기가 설치

되여있어 순찰 및 정찰임무 를 수행할수 있다. 《나제르》로 명명된 소형 무인직승기는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하여 수색과 국경순 찰, 반마약작전에 적합하다 교 한다.

또한 이란에서 올해 3월 십 각 한 실 업 분 제

오스트랄리아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 의 첫 4개월동안에 석유화 학제품수출량이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 4% 증대되

한편 이란에서 3월 21일 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1. 4분기에 기술공학부문의 수출액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 대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아르헨띠나에서 아르헨띠나에서 일자리조

성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전국적범위에서 일자리문제 를 맡아보는 전문기구가 새 로 설립되였다.

기구는 기업소들과의 련 계밑에 로력실태를 료해하 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것이 라고 한다.

빠라파이에서 빠라과이경찰이 3일 아맘 바이주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렸다.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현재 전국

적으로 약 58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

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3. 4t의 마리후 아나와 1.1kg의 코카인을 압수하였다.

이 나라 반마약당국이 이 에 대해 밝혔다.

메히꼬에서 메히꼬정부가 수도에 국 제비행장을 새로 건설할것 을 계획하고있다.

비행장이 완공되면 6개의 활주로가 갖추어지게 되며 년간 려객수용능력이 크게 증가될것이라 한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이 이 에 대해 밝혔다.

가 나 에 서 가나에서 에볼라방지사업 에 큰 힘을 넣고있다.

2일 이 나라 보건상은 에볼라비루스감염자가 발 생하는 경우 긴급대응할수 있는 특별그루빠를 내오는 사업이 추진되고있다고 밝

혔다. 또한 10개 주에 있는 병 원들에 감염자들을 격리하 고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 들이 꾸려지게 된다.

수가 39만 8 320여명에 달하 였다.

아일랜드에서 8월에 실업자

3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 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시여 조선인민이 세인을 놀래

우는 기적과 혁신을 련이어 창 조하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 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는데 대하 조선인민이 더욱 강해지고 행

는 건국로선을 제시하시고 1948년 9월 9일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장구한 기 에로 이끄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창 건된지 2년도 안되여 일어난 조 선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 하던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 게 수호하였으며 전후 재더미우 에서 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을 수행한데 이어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도 성과적으로 다

의강국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중국 홍콩잡지 《국제련계》

미국의 어용나팔수들이 입이 닳도록 설교하는 《만민평등》이

란 과연 어떤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 을 주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 난 8월 미국의 미주리주 퍼구 슨시에서 백인경찰이 적수공권 의 18살 난 흑인청년을 총으 로 쏘아죽인 사건이 발생하

였다. 몸에 6발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진 흑인청년의 끔찍 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치 떨리는 살인만행에 분노를 표시 하였다. 사건의 발생지인 퍼구 슨시에서 시작된 항의시위는 워 싱톤과 뉴욕을 비롯한 100여

FigHT

살인만행을 단죄하는 미국인

FOR

시위자들은 흑인청년을 살해한 백인범죄자를 비호두둔하고있 는 당국의 처사를 준렬히 규탄 하였다. 미국전역을 휩쓴 반인 종주의시위는 피부색이 다르다 는 죄 아닌 《죄》로 미국사회에 서 갖은 멸시와 학대를 받아온 흑인들의 쌓이고쌓인 울분의 폭 발이였다. 문제는 흑인청년의 죽음에 대

한 당국의 태도이다. 당국은 흑 인을 살해한 경찰을 처벌할 대 신 중무장한 경찰들을 시위진압 에 내몰았다. 경찰들은 시위군중을 진압하 는데 장갑차까지 동원하였다.

이것은 시위자들의 분노를 더 욱더 자아냈다. 도처 에서 격렬한 항의시 위가 련일 벌어지고 있는 속에 미주리주 의 쓴트 루이스시에 서 23살 난 흑인청 년 한명이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죽는 사 건이 또 터졌다.현 지주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자 미주리주당

국은 비상사태를 선

화하였다. 흑인들에 대한 련이은 총격사 건,대중적인 항의시위와 시위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비 상사태선포, 이 모든 살풍경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에 둘도 없는 인권불모지라는것을 다시금 똑 똑히 드러내보였다.

라앉았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땅 덩어리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인 종차별정책이 달라질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 하여 페부로 느꼈다. 오죽하면 서방정객들까지도

미당국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리로 떨쳐나와 시

결코 흑인이 대통령자리에 올

위를 벌리는가 하는 리유를 저 들의 사회정치적배경에서 찾 아보아야 한다고 비난하였겠 미국정객들이 입버릇처럼 외 워대는 《만민평등》이란 한갖 저 들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 한 너울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

에서 인종주의가 자취를 감추었

다는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2012년초 플로리다주에 서 마틴이라는 1 0대의 흑인학 생이 집으로 돌아가던중 백인경 찰인 죠지 지머맨의 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그해 4월에 백인 들이 자동차를 몰고가면서 길을 가던 사람들속에서 흑인들만 골 라 총으로 쏘아죽인 사건은 이 를 증명해주는 최근년간의 대표 적인 실례이다.이뿐만이 아 니다.

미국의 뉴욕시에서도 경찰들 의 무차별적인 사격으로 무방비 상태의 죄없는 흑인들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는 끔찍한 참사가 빚어진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당시 경찰들은 한 흑인 남성에게 온몸이 벌둥지처럼 되 도록 무려 50발의 총탄을 퍼 부었다고 한다. 그 전해에도 경 찰이 쏜 19발의 총탄을 맞고 숨진 흑인살해사건은 사람들에 게 죽음과 공포의 악몽을 되살

려주었다. 살인자들은 사죄할 대신에 낯짝 을 쳐들고 《실수》니, 《정당방위》 니 뭐니 하고 뇌까렸다. 배후에 는 언제나 그들을 비호두둔하는 당국자들이 있었기때문이다. 그 후에 있은 재판들에서 살인자들 이 무죄석방된것은 두말할 여지 조차 없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

2 1세기도 1 0년나마 지나 간 오늘 아무러한 과학적인 근

아닐수 없다.

거도 론거도 없이 피부색이 차 이난다는 한가지 리유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마구 유린하고 지어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인 종주의자들이 뻐젓이 활개치는 것은 미국의 수치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에서는 유색인들에 대한 구타와 살해, 위협과 공갈이 벌어지고있으며 절대다수 흑인들이 빈궁선이하 에서 헤매이고있다. 흑인들이 백인들을 압도하는 지표는 실업 률과 사망률뿐이다. 인디안들에 대한 학살만행으

로 그 첫발을 뗴고 흑인노예들 의 피와 땀으로 살쪄온 미국에 서 백인이 아닌 주민들은 피해 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 물로 되고있다.

썩어빠진 사회현실은 광범한 대낮에 사람잡이를 하고서도 대중의 분노를 낳기마련이다. 지머맨사건을 둘러싼 항의시위 에 뒤이어 올해에 또다시 터진 흑인들의 반인종주의시위가 순 식간에 미국사회를 뒤흔들어놓 은것은 극도로 첨예화된 사회계 급적모순이 낳은 필연적산물

> 인종차별의 왕국인 미국의 운 명이 비극으로 끝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전 영 희

대한 탄압을 더욱 강 1일 이 나라의 한 조사단체는 편 집 위 원 회

무고한 흑인청년을 쏘아죽인 경찰의 포하고 시위군중에